

“풍요롭고 아름다운 섬 무인도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완도 죽골도 홀로 지키는 김일호·소정숙 부부의 설 희망가

40년 전 12가구 살던 섬... 10년 전 들어온 김씨 부부만 남아
전력·식수 부족하고 여객선 없어도 죽골도 있을 때 가장 행복
대나무 치고 산책로 만들고... “가꾸다 보면 많은 사람 찾겠죠”

“우리만 남은 ‘죽골도’ (竹窟島)의 아름다움을 아는 주민들이 늘어 이웃들이 바글바글 했으면 합니다.”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 ‘죽골도’ (21만 4612㎡)에 살고 있는 김일호(66)·소정숙(여·61) 부부의 새해 소망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섬의 인구 변화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부가 살고 있는 죽골도는 2067년 무인도가 된다.

현재 죽골도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완대나무가 자생해 죽도라 부르다 죽골도로 명칭이 변경된 이 섬의 현재 주민은 2가구 4명이다. 50여명을 헤아리던 때는 옛일이다.

하지만 한 가구는 건강상의 이유로 섬을 빠져나가 도심 병원근처에서 살고 있어 사실상 주민은 김씨 부부 뿐이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북적여 여객선이 죽골도를 경유했지만, 점차 주민이 줄어 수십년 전부터 죽골도 배편은 끊겼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완도 노화읍에서 30분간 김씨의 배를 타고 도착한 죽골도에는 빨간 지붕과 파란 지붕 두채가 세워져 있었다.

선착장에 내리자 입구에는 김씨 부부가 직접 만든 ‘오셔서 반갑습니다’ 바위가 우뚝 세워져 있었다. 길목 따라 페인트 칠 된 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대나무로 만든 사다리가 놓여있었다. 김씨 부부가 정성으로 키우는 파와 마늘이 자라고 파릇파릇한 날씨에 활짝 핀 유채꽃도 보였다.

김씨부부는 10년 전 죽골도에 자리잡았다. 뼈대만 남은 집을 사들여 돌담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페인트칠을 했다.

과거 고기잡이배와 돛단배를 타고 놀러온 아이들

로 북적였던 이 섬은 지금은 김씨 부부만이 남아 지키고 있다.

김씨는 선박장에 배를 묶으며 “이곳 죽골도가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 북적했다”며 웃어보였다.

죽골도 앞바다는 참돔이 잘 잡히기로 유명해 낚시꾼들이 자주 찾았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회 떠 먹는 어른들과 썰물에 맞춰 조개 캐는 아이들이 가득했다. 김씨도 어릴적 돛단배를 타고 친구들과 죽골도에 자주 놀러왔다.

김씨는 가업을 잇기 위해 16살 때부터 미역·전복 양식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수십여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밤 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60대가 되자 체력의 한계를 느꼈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 전 두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수십년간 해오던 일을 그만두면서 어린 시절 추억으로 가득한 죽골도가 생각났다. 죽골도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것 같다”며 “완도에서 함께 나그저란 아내도 동의해 이곳으로 살림을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작은 풍력발전기는 녹슬어 오래전 멈췄고 정박된 배로 가득했던 선착장은 텅 비어있으며, 조개 줍던 아이들이 가득했던 모래사장은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만 남아있다.

김씨네 집으로 들어가면 냉기가 감돈다.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아 한겨울철에도 전기장판과 난로로 버텨야 한다. 전기가 부족해 전기장판조차 틀지 못할 때도 많다. 식수와 생활용수는 커다란 물탱크에 빗물을 담아 사용한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비가 오지 않아 물을 길지 못해 고생했던 기억도 있다. 또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노화읍으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완도 죽골도를 지키는 김일호, 소정숙씨 부부가 바다 앞에서 환하게 웃어보이고 있다. 완도 죽골도의 모습 (아래).

바다 위에서 거센 파도에 침몰할 뻔 했던 위험도 있다. 태풍이 예고됐던 지난 여름, 묶어둔 배 위로 거센 파도가 내려쳤고 김씨 부부는 배가 부서질까 염려돼 정박을 위해 노화읍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떠났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높은 파도가 배를 덮쳤고 조타실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왔다. 배가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실거려던 그때를 김씨부부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김씨는 “섬에 살다 보니 항상 날씨 예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와 물이 충분하지도, 이동이 편리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부부는 죽골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웃어보였다.

김씨는 “집 마루에 걸터앉아 바다 위로 떨어지는 낙조를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며 “부족한 농작물은 직접 키워먹고, 앞바다에서 돌고래 잡고 물고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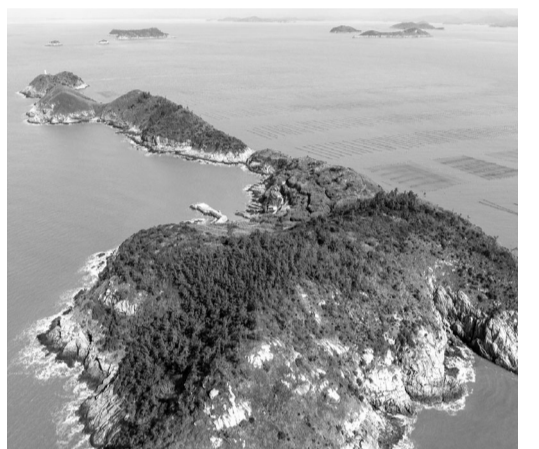
고동 잡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죽골도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김씨는 “나이가 들어 우리 부부마저 죽골도를 떠나게 되면 이곳은 무인도가 된다”며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빗고동 소리로 가득했던 죽골도가 언젠가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될까봐 걱정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씨부부의 목표는 이곳을 ‘아름다운 섬’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후죽순 자란 대나무를 치고 산책로를 만들었으며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도 설치했다. 산책로 중간과 능선 위에는 앉아서 쉬 수 있도록 대나무로 의자를 만들어 설치했다.

김씨는 “섬 곳곳을 아름답게 가꾸다 보면 이곳을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관심



을 갖게 될 것”이라며 “죽골도를 찾고 싶은 공간으로 가꿔 다시 ‘사람사는 섬’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완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산구 우리동네 조정기들이 들려주는
명절에 더 늘어나는 이웃갈등 해소법

“이웃 갈등 원인은 소통 부재...마음 열고 대화하면 대부분 풀려”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닫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웃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광산구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조정가)들이 제시하는 이웃갈등 해결방안이다.

7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산구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이웃갈등의 85%는 ‘충간소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생활누수·기타 사유가 각 5%를 차지한다.

광주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65.5%로 지역민 3명 중 2명 꼴로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수 백명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 주거가 늘면서 증

아파트 갈등 85%는 충간소음
역지사지 입장 이해하면 해결

간 흡연, 주차, 쓰레기 배출, 애완동물 관리 등 사소한 다툼이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조정가들의 이야기다.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설 명절에는 이웃끼리 갈등이 더 심해진다.

2022년부터 조정가를 해온 박미숙 (여·59)씨는 “충간소음의 이웃 갈등은 세면대에 칫솔 터는 소리부터 바다에 놓은 휴대전화 진동소리, 쿵쿵 걷는소

리 등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까라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4월 해결된 충간소음 해결건을 사례로 들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웃 주민이 아래층 주민이 출근준비 때문에 이른 아침마다 내는 생활소음을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아래층에 찾아가 항의하길 수차례, 주먹다짐도 불사해 경찰 신고도 반복했지만 3년여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의 갈등 해결의 방법은 ‘대화’였다.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냈던 이웃 주민의 이야기를 들

은 아랫층 주민은 “내 집이라, 편하게만 생활하려 했다. 나로 인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미처 몰랐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한 뒤 문제는 해결됐다.

소통의 부재가 갈등의 원인을 못 찾게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에서 퇴직해 조정가로 활동 중인 손성민 (64)씨는 지난 2022년 1월, 신가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의 충간소음을 예로 들었다. 이 아파트에서 ‘웅’ 소리가 나면 주변 4-5기구가 동시에 “조용히 좀 하라”고 악을 쓰곤 했다.

주민들은 원인도 모른채 큰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이웃들간에 서로를 의심했다는 것이 손

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모여서 이야기하고 원인을 찾은 결과 소음의 원인은 수도관에 물이 흐르면서 압력차 때문에 나는 소리였고 결국 수도관 밸브를 교체해 문제를 해결했다.

17기부터 활동한 조정가 조보라(여·58)씨도 “충간소음 당사자들 중에는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은 있지만 나쁜 사람은 없었다”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충간소음”이라며 “힘든 점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